

# 門 연 정기국회... 여야 대치속 정상화 '산넘어 산'

## 7·30 재보선 당선 여야 15명 '지각 의원선서'

### 與-세월호 유가족 3차 면담 고성 속 30분만에 결렬

19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대치로 완전 정상화까지 협로를 예고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 직후 열린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들과 3차 회동도 소득없이 끝나면서 정기국회도 지난 7~8월 임시국회처럼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과 본회의를 개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對)투쟁 가운데서도 이날 개회식과 본회의에는 참석했다. 7·30 재보결

선거에 당선된 새내기 의원들은 이날에서야 한 달 만에 당선인사를 했다.

국회는 또 이날 박영선 신임 국회 사무총장이 내정된 지 두 달여 만에 임명 표결도 진행해 승인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제 우공이산(愚公移山) 타협 정신으로 세월호 특별법 국면을 넘어서고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밤을 새워서라도 해내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나경원·이정현·정미경·배덕광·박맹

우·이종배·김제식·홍철호·정용기·김용남·유의동,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운·이개호·신정훈·권은희 의원 등 7·30 재보선에서 당선돼 등원한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선서와 인사말을 했다.

순천·곡성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민을 하늘로 모시겠다"고 했으며 광주 광산구의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에 독립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게 국회가 찾아갈 최대 공약수"라는 주장으로 인사를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했다.

이날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기국회 일정에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정치연합이 지난 주의 장외투쟁 일련도에서 벗어나 제한적이지만 원내투쟁으로 선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부 상임위가 가동될 수도 있지만 당장 전면적 정상화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과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3차협상을 열었지만 별다른 소득없이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30여 분 만에 결렬됐다.

이날 회동에서도 유가족 측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끝내 이걸 차를 좁히지 못하자 유가족 측이 "똑같은 얘기로 우리를 설득할 거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이번 협상도 결렬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달만에 국회 출석 안철수 "대표때 세월호 문제 마무리 못해 죄송"

7·30 재·보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일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차 한달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지난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 때 빼고는 공식 행보를 자제해 왔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개회식 직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는 불참하고 본회의장으로 직행했다.

안 전 대표는 "한달 쉬는 동안 생각 많이 하셨느냐"며 근황을 묻는 질문에 "쉬지 않았다"며 "정치 입문 후 2년 동안 앞만 보고 뛰어왔던 것 같다. 오랜만에 뒤돌아보고 정리할 기회를 가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장외투쟁을 어떻게 보느냐", "당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여당이 (세월호법) 3차 협의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는 등 이어지는 현안 관련 질문에는 언급을 피했다.

김 전 대표도 장외투쟁과 이를 둘러싼 당내 강은 노선 갈등 등 당내 현안에 대해 "자자 좀 갑시다"를 연발하며 언급을 자제했다.

두 사람은 개회식 후 국회의원식당에서 모처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리 박한 유가족 김병권 위원장 등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들(왼쪽)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과의 3차 면담에서 협상 진전이 없자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권후보 지지율 안철수, 6위로 추락 1위 김무성, 2위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도가 계속 떨어져 6위까지 추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일 발표한 8월 4주 차 여론조사 결과, 안 전 공동대표가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7.0%에 그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 5위 자리를 내주고 6위로 밀려났다. 안 전 공동대표의 지지율은 5주 연속 하락했다.

1위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로 17.6%를 기록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16.7%), 문재인 의원(15.3%)이 뒤를 이었다. 4위와 5위에는 새누리당 소속 정몽준 전 의원(9.7%)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7.8%)가 각각 차지했다. 6위 안 전 공동대표에 이어 새정치연합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3.2%),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3.0%),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1.8%)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방식으로 휴대전화와 유선 전화 병행(RDD)방법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정치 박영선 대표·의원들 오늘 진도방문 실종자 가족 위로

정충원 국무총리가 1일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국회를 방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방을 찾았으나 면담은 불발됐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 본청 2층의 박 위원장 방을 예고 없이 찾았으나 박 위원장이 방을 비워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돌아갔다. 총리가 야당 대표를 약속없이 찾아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박 위원장은 2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는 일정 관계로 다른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방에 돌아온 박 위원장은 정 총리가 방문했다가 돌아갔다는 소식에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왔다 가셨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 측은 정 총리 측에 사전에 이날 면담이 어렵다고 의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것에 내심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위원장 측은 지난달 정 총리 측에서 이날 개회식 직전 박 위원장을 예방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을 당시 일정상의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 정 총리

가 답하문까지 발표하며 국회에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를 주문하고 나선 만큼 이날 회동도 자칫 '홍보성 이벤트'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정 총리는 박 위원장 방문 찾기 전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를 차례로 예방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의장과 면담 이후 "(총리께서) 세월호 걱정을 하면서 잘 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영선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 등과 함께 2일 진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못지 않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들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실종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합동구조팀에 수색작업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울리오는 길에 광주에 들어 전통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이 예금과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과세 예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8%)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금호지점/동암지점

**2014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9기)	광주교육대학교(107기)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 '2014. 9. 5(금) 09:10 (특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14. 9. 5(금) 14:10 (초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14. 9. 6(토) 09: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4. 9. 6(토) 14:10 (특급반)	· 월요일 오후반 '2014. 9. 1(월) 14:10 (초급반) · 월, 목 야간반 '2014. 9. 1(월) 19:00 (중급반) · 목요일 오전반 '2014. 9. 4(목) 09:10 (고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4. 9. 6(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4. 8. 1(금)~9. 6(토)	2014. 8. 1(금)~9. 6(토)
수업기간	2014. 9. 5(금)~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4. 9. 1(월)~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학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위특기) 부여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학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위특기)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950-3582~4 · 지도교수: 010-3614-4160 <b>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b> http://always.kwu.ac.kr	· 문 의: 062920-4243 · 지도교수: 010-3614-4160 <b>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b> http://www.gnue.ac.kr/

##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관후근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책 외벽, 계강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성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강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